

문 대통령 “친일 청산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출발점”

백범 기념관서 국무회의 백범 묘역·안중근 가묘 참배 “평화와 번영의 새 100년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공공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시점에서, 한국이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하며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효창공원 안에 있는 백범 김구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묘역과 안중근 의사 가묘를 참배한 뒤, 백범김구기념관으로 이동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최고 심의·결정 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 요인들의 높은 위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범 기념관과 함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공화국 역사를 전승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건립되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더는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역사 3·1절 100주년을 기점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경우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역사적 의미를 살렸다”며 “임시정부 각료회의를 회고하면서 3.1운동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과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유관순 열사에 최고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를 통해 애국 정

신을 길러 민족 정기를 드높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나 최근 유 열사의 공적을 평가할 때 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상훈법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사후(死後) 공적에 대해 추가 서훈하는 방식을 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1절 특사 4378명...이석기·한명숙·정동채 제외

7대 갈등사건 관련자 대거 포함 정동채 제외 광주·전남 아쉬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3·1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두 번째다.

오는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법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행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378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법을 제외하고 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의 사면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정부는 특별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들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복권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경우 3·1 운

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정동채 전 의원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경제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구 2·28-5·18 연대...광주 228번 버스 달린다

대구 518번 버스 운행 화답 이용섭 시장 “노선 운행 검토” 달빛동맹 각종 사업 속도

광주시에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228번 시내버스, 대구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의미하는 518번 시내버스가 각각 운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의 왜곡에 대한 사과로 한층 가까워진 광주와 대구가 ‘달빛동맹’을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구시와의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달라”며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념해 228번 시

내버스 노선 운영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59주년을 맞은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8개 고교 재학생 등 1200여명이 자유당 부패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4·19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 이정표”라며 “광주의 5·18이 대구의 2·28과 맞닿아 달빛동맹으로 이어지도록 연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의 열린 마음과 역사의식이 큰 힘이 됐다”며 “망언 이후 광주와 대구가 형제 도시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달빛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이 최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도전자로 저를 지명했다”며 “이번 망언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권 시

장의 마음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도전에 저를 지명하는 게 우의 증진을 위한 진정성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시는 버스노선 신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노선 가운데 2·28 민주운동 취지에 부합하는 노선을 골라 번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에게 노선 번호 변경 이유를 설명하는 등 공감대 형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께 228번 시내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또 달빛동맹 강화 방안으로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철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중증 장애아동 정책 강화 등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